

이용배 형법 강의계획서

■ **신체계 판례형법**
최고의 효율성을 가진 수험적합적 교재!
■ **이용배 선생의 판례강의**
시험장에서 답이 생각나도록 하는 최고의 강의!

- ■ 담 당 이용배
- ■ 강의일정 2015년 8/3 ~ 8/15 (월 - 토), (총 12회)
- ■ 강의시간 오전 9:10 ~ 12:40 (※ 수업시작 시간 변경 유의)
- ■ 강의교재 신체계 판례형법(저자, 우리아카데미 刊),

판례교재와 판례강좌의 독립적 가치에 대하여

제가 집필한 기본서인 **신체계 형법강의**에도 시험에 필요한 모든 판례가 실려 있습니다. 그러나 제가 판례강좌를 독립된 교재인 **신체계 판례형법**으로 진행하는 것은 실전시험에서 필요한 절대적 효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시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판례의 경우 별도의 문제형식(기본서는 판례이론 중심이라면 판례집은 사례중심)으로 된 교재에 의한 연습 없이는 - 기본서에 실린 판례를 그저 읽었다는 정도로는 - 실전시험에서 답을 맞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웬만한 기본서에는 시험에 출제되는 이론과 판례가 실려 있습니다. 그러나 이들에 대한 실전 연습 없이는 시험장에서 답을 고를 수 없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(진도별모의고사)를 연습하는 것입니다. 수험생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일정한 내용이 기본서에 실려 있다는 이유로 객관식 문제를 연습하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. 판례는 출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훨씬 커서 합격을 좌우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더욱 상세히 공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. 판례교재를 별책으로 보게 되면 공부량이 늘어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그 실질을 간과한 형식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. 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부해야 할 판례의 절대량은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학습하여 잘(빨리) 정리할 수 있는 것 인지의 문제이지, 판례교재를 공부한다고 해서 공부해야 할 판례가 다시 두배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. 기본서만 두 번 읽은 수험생과 기본서와 판례집을 각 한 번씩 읽은 수험생의 경우 판례문제에 대하여 후자쪽이 성적이 더 높은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.

강의진도표

횟 수	일 자	강 의 내 용
1	8/3(월)	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까지
2	4(화)	위법성까지
3	5(수)	교사범까지
4	6(목)	형벌의 종류까지
5	7(금)	강요죄까지
6	8(토)	주거침입죄까지
7	10(월)	소송사기죄 앞까지
8	11(화)	횡령죄까지
9	12(수)	손괴죄까지
10	13(목)	문서죄까지
11	14(금)	뇌물죄까지
12	15(토)	무고죄까지